고은 불교대하소설

섬 지키기



무욕도는 더이상 천년만년의 무욕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아무런 너스레도 없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79

섬에 혼자남은 우녀는 파도에 몸을 던져 다른세상을 예험하고…

두번째의 그다지 격렬하지 않은 진도(震度)일지언정 사람과 건물이 떨만한 지진을 겪은 두사람이야말로 새삼스럽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그토록 의지하고 있던 곳이 지진으로 하여금 가장 의지할 수 없는 곳임을 깨닫게 된 것도 그렇겠다. 무욕도는 더이상 천년 만년의 무욕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제법무아(諸法無我)를 아무런 너스레도 없이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무욕도에서 사는 너와 나라는 자아(自我)역시 얼마나 하찮 것이 없어질 수 있는 무아(無我) 그 자체의 징표가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사람이나 만상(萬象)의 어느 것 하나도 덧없는 바를 이겨낼 수 없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의 이치일 따름이다.

그런 나머지 의미있는 것에 대한 무의미가 참다운 의미로 되는 선가(禪家)의 작풍이 힘을 떨치게 된다. "달라붙은 것을 풀고 결박을 없애며 못을 뽑고 문설주를 뽑아버려라"라는 불호령도 거기에 있어야 하였다.

인담은 두번째 지진 뒤로 그동안 밀린 일에 손을 댔다. 우선 얼마전 충청도 덕숭산과 가야산을 거쳐서 이곳 무욕도의 소문을 듣고 건너온 정혜사의 화주승(化主僧) 한 사람이 봉이 커서 불교에 관한 것도 아닌 서하문집을 한정판으로 간행하겠다는 뜻을 얘기 끝에 냈거니와 그 문집을 인담이 다시 편찬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동안 그 문집 속의 시문(詩文) 들이야 빈 창자 속에 마신 술이 번져가듯이 뜨르르 퍼고 있는 터여서 그것을 인담의 안목으로 다시 편찬하는 일은 퍽 어려운 노릇이 아니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일단 물에 건너가야 하였다. 그 문집을 편찬한 필사본을 가야산에 머물고 있는 화주승에게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우녀님 나와 육지에 건너가지 않겠오? 이 문집을 넘기는 일도 겸해서 내가 볼가볼 다녀와야 하겠기에."

"그럴까요."

"함께 건너갑시다."

"인담화상. 설마 당신은 이곳을 아주 하직하자는 말은 아닐 터이지요?"

"무슨 뜻이오?"

"그른 아니라… 이 섬에서 비구와 비구니 두 사람이 사는 일도 인근 해안에서야 입방아를 찧을만한 것인데 그 비구와 비구니가 도타운 정분이라도 자랑하려고 들의 여기저기를 떠돌자는 말이오?"

"그럼 어찌한단 말이오?"

"인담화상. 당신 혼자 건너갔다 오시구려. 나는 이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마치 행상(行商)에 나선 지아비를 기다리는 아낙인듯이… 호호호."

이렇게 인담의 동행 제의가 거부된 뒤 사흘동안 인담은 그가 정리한 필사본을 다시 훑어보는 일에 몰두하였다. 먹이 떨어져서 먹 대신 숯물에 붓을 적셔 쓴 뒷부분이 아무래도 불안하였다.

그는 그 필사본을 기름 먹인 종이로 겹겹으로 싸서 품에 넣고 때때를 저어나갔다. 썰물이 밀물로 바뀌는 저녁 무렵이었다.

섬에 남기로 한 우녀가 인담의 때때를 바위꼭대기에 올라서서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우녀는 썰물밀물의 까닭을 몰랐다.

하지만 이씨조선 중기의 중대없는 사대부들에 의하면 조선의 서해는 중화(中華)와 가깝기 때문에 썰물밀물이 일고 동해는 중화를 등지고 있기 때문에 썰물밀물이 없다는 괴이한 중화에의 사대(事大)를 말한 것은 언젠가 무욕도선원이 한참 대중이 많을 때의 불이가 우녀에게 알려준 적이 있었다.

"사대라는 것들이 썰물밀물까지도 되놈을 섬기는 것으로 풀이하다니… 인담도 지진이 겁나 슬쩍 몸을 피해보자는 속셈인지…"

이런 불평에는 일정한 경지에 이른 사람에게도 어느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마음 그대로인 사실에 대한 혐오가 스며있다. 그것은 그들이 혀를 내둘러 설왕설래하는 그럴듯한 거량(擧揚)들이란것 헛수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도 덧붙여지고 있는지 모른다.

"하기야 불이수좌도 말한 적이 있었지. 3교 9류—전한시대 9학파, 유가·도가·음양가·법가·명가·묵가·종횡가·잡가·농가—나 제자 백가들도 입만 열면 도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 그 놈의 도가 다만 이런 지경이라면 그 어느 놈이 그것을 참으로 증득하였다 하리… 멀리 옛 되놈들을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양반이라는 것들의 저고리 소매 길이 따위나 따지는 예송(禮訟)사건의 당쟁놀이도 한심할 일이라 하였지… 참… 지금쯤 불이수좌는 어느 세상에 납시고 있는지…"

우녀조차도 이미 서하 임춘에 관한 내력에 익숙한 형편이다. 그것은 인담의 열렬한 관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임춘의 후신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는 우녀 자신으로 하여금 한때 불이와의 거침없는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임춘에 대한 임춘의 후신으로서의 비약적인 단면을 발견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임춘이 아주 무색계(無色界)에나 노닐만한 때에 난데없이 지상에 잘못 태어나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지 못하고 궁핍 가운데 산 것을 마치 그 당시 고려의 무신(武臣)시대 때문이라고 말하는 인담에 대해서 불이는 "서하는 그저 거지 아닙니까!"라는 한마디로 끝냈다.

그때의 불이를 우녀는 잊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인담이 탄 때때가 밀물의 힘을 빌어 멀어져 간 뒤 섬에 혼자 남은 우녀는 그 자신으로 돌아왔다.

"저런! 인담화상을 두고 시비를 걸 것이 아니로다. 이내 신세야말로 개탄꺼리의 주인공이 아니더냐… 그런 인담 때문에 불이나 생각하는 따위의 잣이 나란 말이냐. 아아 두 숫컷 짐승한테 실컷 암컷노릇이나 해줄걸…"

우녀는 섬 하나가 이렇게 큰 세상인 줄을 이제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기껏해서 함께 자고 케이는 인담 한 사람이 떠나자 이렇게 마음 가운데 안착이 없어진 상태가 되다니!

그녀는 부엌 크게 들리는 파도소리에도 귀가 기울여졌다. 여느 때라면 하도 들어서 파도소리 따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하루하루였는데 오늘따라 인담이 없는 이곳이 야말로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파도소리가 4방팔면에서 우레가 진동하듯 벼락이 치듯 호호탕탕하게 들려 도무지 앞뒤를 꽉 채우는 그 우렁찬 상응(相應)의 확대야말로 우녀에게 뜻밖의 사건이 되고 있었다.

"무 짐승이 아니라 이 파도더미에 내가 몸을 바쳐야 할 일이로다."

그녀는 그 자신의 의지보다 한발 앞서 이미 몸을 물에 던졌다. 풍덩! 소리따위가 있을 리 없었다.

밀물의 그 풍요한 위세는 한 여자의 몸 따위는 곧장 파도더미 위에 띄워 올렸다 내렸다 하기 시작하였다. 다행히 우녀는 헤엄칠 수 있었다. 아니 파도에 내맡긴 채 파도더미를 타고 떠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녀의 몸 안에는 의식이 불명이었다. 그런 한동안이야말로 그가 짠물이라도 들이키게 되어서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바라는 몽롱한 시간이었는지 모른다. 그런 시간 속에서 그녀는 다른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그녀 자신의 어떤 사건을 예험(豫驗)하고 있었다. 그 세상에서 그녀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그 남자가 한 무덤 옆에서 살고 있었다. 무시무시한 우뢰소리가 나고 비바람이 친 뒤 무덤 속에서 그 남자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무시무시하지 않고 은근하기까지 하였다.

남자는 도리어 그런 은근짜가 더 소름끼치는 공포를 일으켜서 부들부들 몸을 떨고 있었다. 그렇게 해서 밤을 밝힌 뒤 남자는 무덤 너머에 사는 다른 남자에게 달려갔다. 그는 달래해서 표범과 싸워 그 표범의 가죽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무덤 속에서 어떤 말소리가 들린다는 말을 듣고 무덤 옆의 남자네 움막으로 와서 대기하고 있었다.

"어디 기다려보자."

과연 다음날 밤중에도 어젯밤처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대기하고 있던 그가 무덤으로 가서 "그대는 누구이길래 사람을 부르는가"라고 용감하게 외쳤다.

그랬더니 무덤 속에서 대답이 나왔다.

"나는 땅속에 숨겨진 보물이다. 나는 어젯밤에 내 말을 들은 사람에게 나를 몽땅 주려고 했는데 그는 겁을 먹고 오지 않았다. 그대는 나를 가져갈 수 있다. 내일 아침 7명의 따르는 자와 함께 너의 집으로 가겠다."

그는 그의 가난한 집으로 돌아갔다.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표범가죽을 꺼내어 걸어 뒤 그 자신도 오랫만에 목욕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다.

아침이었다. 한 사람이 일곱사람을 대동하고 그를 찾아왔다. 그들은 다 출가승들이었다. 방으로 안내하여 맑은 물과 죽을 공양하였다. 그랬더니 여덟사람은 각각 커다란 금덩어리로 변하였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이랫마을의 욕심장이가 그도 여덟사람의 수행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집에 온 사람들은 바로 황금칠을 한 흙덩어리였던 것이다.

또한 처음에 무덤속의 소리를 듣고 공포에 떨던 남자는 금덩어리 소식을 듣고 그 금덩어리들을 그의 보물이라고 주장하자 담대한 남자의 금덩어리 한아리 속에 뱀이 가득차 있었다.

우녀는 이런 예험에서 깨어나는 순간 과도자락에 의해서 짠물을 먹게되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헤엄쳐서 섬 가까이 있는 암초를 손으로 붙잡을 수 있었다. 손은 암초의 한 부분에 다쳐서 피가 났다.

그렇게 암초에 의지하고 있다가 그 암초가 들들들 떨리는 것을 감지하였다.

그녀는 힘껏 헤엄쳐서 섬에 올라올 수 있었다.

"지진이란 늘 있는 일일 뿐이로다"라고 그녀다운 넉넉한 광상심으로 돌아왔다. 그러고 본즉 섬도 조금 떨어졌다.

"인담화상이 화주승을 만나려면 며칠은 더 걸리겠지. 돌아오기에도 며칠은 더 걸리겠지… 인담이 금덩어리 보배의 임자인 모양인가. 그렇다면 내가 뱀 한아리나 말을 터이지."

미래와 오늘이 뒤엉켜 있는 우녀의 마음은 서글퍼다. 갈아입은 옷도 서글픈 느낌이 들었다.

그림 · 조향숙

봉 불기 2540년 부처님 오신날 축

사단법인 한국불교화원
총재 : 이 외 윤
부총재 : 김병회
이사장 직무대행 : 이원산(용천사)
교화원장 : 정창교(도림사)
포교사회장 : 백운월(불교여래원)
세계 불교사 사장 : 이정숙(법화홍통원)
통신대학 원장 : 한정섭(상락항 수도원)
이사 : 안경우(안양원)
이사 : 배창윤(송암사)
이사 : 이상하(수월사)
이사 : 배정길(청소년 독서실)
이사 : 권세철
이사 : 주명식
이사 : 김차례
이사 : 양승희
이사 : 김익순
감사 : 이정명(유마정사)
감사 : 허기덕

동성한약방
대표 최 춘 길
▶주소 : 대구 광역시 중구 동성로 3가 47번지
▶전화 : 053-252-6411 255-2769

이생 약국
대표 안 종 석
▶주소 : 대구 광역시 달서구 월성동 동서상가 1층 1호
▶전화 : 053-634-5776

악사여래도량 팔공산 선본사
(갓바위)
사부대중 일동
●주소 경북 경산시 화촌면 대한리 587
●전화 053-851-1869

칠보사
조실 : 강 석 주
주지 : 김 동 호
사부대중 일동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전화 02-732-1424

범종사
대표 정 순 복
●주소 종로구 견지 55-2
●전화 02-735-1045
●공장 0333-683- 2672

부산불교운전기사회
회 장 : 백 봉 도
상임부회장 : 고 영 호
●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초량동 1204-7 혜정빌딩 7층
●전화 464-2020

대한불교 조계종 문수사
주지 최 지 원
●주소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1-3
●전화 624-3754, 623-3648

보국 윤활유 상사
대표 김 억 이
●주소 대구시 북구 칠성 2가 152-179
●전화 053-356-7750~1